



김종웅
현대사료(주) 부사장

원융회통(圓融會通)

“

”

6. 25 전쟁 후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을 정도로 기아에 시달렸던 민족이었다. 그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녹색혁명을 통하여 전 국민의 양적 식생활이 특수한 빈곤계층을 제외하고는 현재 기아로 고생하는 국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 대다수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롭게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표가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름 아닌 식량 자급률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약 25%선이다. 지난 10년간 이상 언론보도나 정부통계에는 이 수치가 불변처럼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전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에 나서 세계적인 식량파동으로 변졌다. 그것이 식량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그대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식량안보가 무기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이 식량증산에 나섰다.

7월 3일자 니혼게자이(일본경제)는 농림수산성이 39%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98년 이후에도 식량 자급률이 40%를 유지했으나 2006년 39%로 떨어졌다. 일본은 당초 2015년까지 45%로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목표치를 더 올린 것이다.

7월 3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9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량 생산량을 2010년 5억 톤에서 2020년 5억4천만 톤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경지 1억 2천만ha를 새로 확보한다.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식량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외교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지표는 고사하고 국

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표치 하나 제대로 내어 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언론들 또한 다른 주제에 비해서 심도 있는 보도 및 토론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료시장은 90% 이상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그 심각도는 더욱 높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무역에 두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무역적자의 누적에 따른 경상수지악화는 결국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농업정책과 식량자급 정책은 결코 쉽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국제 사료곡물가의 급상승, 유가상승에 따른 선임료의 인상, 내수 위주 축산·사료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환율 상승,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환경 및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관리비용 및 유통비용의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축산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다행히도 그렇게 치솟던 국제 유가 및 곡물가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축산산업을 비롯한 식량자원 확보라는 과제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에 필자는 단기적 방안보다는 국민 의식의 전환을 비롯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우리가 가져할 몇 가지 태도 및 방향성에 대해서 말

하고자 한다.

사료라는 인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겠다. 사료는 본래 인간이 그냥 먹기 힘들거나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적당한 가공을 통하여 가축에게 먹여 사람에게 양질의 단백질 및 지방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원료이다. 하지만 계속된 축산 산업의 발달 및 수입 저가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맞추어 과잉된 경쟁속에 인간과 경합할 수 있는 원료마저 사료원료로 사용되어 생산되어오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료는 어느 순간에 옥수수, 대두박이 사료 원료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원가절감을 하기가 힘든 배합비를 가지고 있다. 사료업계, 학계, 공공기관, 양축단체들의 공동 인식하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원료 다각화에 따른 사료비 절감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다.

바람직하게도 최근 몇몇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DDGS(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를 비롯한 부산물 개념의 원료에 대한 축종별 사양시험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보조사료 및 동물약품업체에서는 효소제를 비롯한 각종 사료이용성 증진을 위한 첨가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곡물가의 지속에 따라 다시 한 번 재고되고 있는 농장에서의 사료허실 문제도 양축가의 노력과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시설 현대화 작업은 단순히 사료 허실 감소만이 아니고 각종 질병 예방, 관리비용절감,

친환경적 축산 등 우리나라 축산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미 정부가 그 현실을 파악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축가의 양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것 같다.

최근 쇠고기협상 문제로 새롭게 제기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상의 문제가 국민의 관심 속에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산지 표시 및 유통상의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국내 생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국내 축산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는 일본, 대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연구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집약적인 축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방대한 면적에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미국식 보다는 집약적 고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유럽의 각종 기계시설 및 사양관리와 이에 세계 최고로 발달된 IT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전자식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토종화된 고효율성 관리 농장을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각종 법률의 재정비를 통하여 국제 환경에 맞춘 축산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발목을 우리 스스로 묶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겠으며, 시기를 놓쳐 대처하기에 이미 늦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이어령교수는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섞고 버무린다는 의미의 Mash Up(圓融會通)

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릿고개에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의 발전 속에서 급성장한 축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식량자급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야할 혁신적 사고 또한 필요하다. 이어령 교수가 말한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사고 전환은 어찌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롭게 발전하는데 필요한 각종 방안을 창출 실행함에 있어 기본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보다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각 기관의 축산 및 사료산업의 지도자 및 실무 책임자들은 단순한 복합적인 방안(composite)보다 원융회통의 융합적 방안(fusion)으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많은 정책과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융합이라는 새로운 차원 즉 축산인들 각자가 생각해온 고유 영역의 벽을 허물어 뭉치자는 의미이다. 즉 뭉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우리 축산인들 만의 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타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혁신의 접목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식량 산업으로서의 축산 및 사료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느냐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필자는 우리 축산인들의 힘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알며 결국 회통(會通)의 경지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